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정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이타성과 박애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 보고 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난 이후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내용 기록을 분석,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장애인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중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갖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봉사활동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는 이타적 동기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더욱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록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봉사활동 경험 이후에는 긍정적 태도변화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봉사활동 시간은 10시간이상 20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길다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유지되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태도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론적 배경의 일부를 보완, 재구성한 것임.

**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연구개발센터 소장

넷째, 장애인에 대하여 직접적 접촉의 봉사활동이 간접적 접촉의 봉사활동에 비하여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 방향으로 첫째, 학교나 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둘째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시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셋째 비장애 청소년의 학부모, 교사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상적인 인격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 서 론

오늘날 장애인 복지의 주요 이념은 정상화와 통합화이다. 여기서 통합은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가정을 가지고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자주·자립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적응하는 일방적 통합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적응하는 사회통합이어야 한다(김성재, 1998:15).

그러나 사회 현실은 장애인은 천시, 멸시, 편견,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전한 사회참여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관념으로 전수되어 내려온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경시 그리고 막연한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이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인식개선과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잦은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이나 통합활동 등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장애인 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역시 장애인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경험을 갖게 됨으로 해서 결

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살펴 볼 때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는 여타의 활동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거나(김인정, 1998:62), 참여 희망을 역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효식, 1995:61). 이러한 이유 역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편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장애인에 대한 접촉활동, 특히 이타성을 특성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활동실태, 참여동기, 지원체계, 시민성과 도덕성 발달 등에 관한 효과나 발달적 측면에 관한 주제가 주종을 이루어 왔고, 상대적으로 봉사활동 참여의 결과로서 청소년봉사자 자신의 도덕성이나 사회성 형성, 정서 그리고 봉사대상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활동 중에서도 비교적 참여율이 낮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는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태도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 주요 변인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활동 이전의 참여동기, 그리고 그들이 실제 참여한 봉사활동 참여기간, 청소년들이 수행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여 직접·간접·혼합형 등으로 구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참여형태 등 3가지를 주요 변인으로 삼아 이들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경험한 이후에는 상기 변인들이 상관되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봉사활동 목표 중의 하나인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이타성이라는 사회복지의 동기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태도변화 이론 - 균형이론

태도변화(attitude change)란 좁은 의미로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태도의 변화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태도 자체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태도의 형성(formation)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태도의 강화(reinforcement)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태도변화에 관한 다양한 이론 중에서도 본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 중의 하나는 하이더(Heider)의 균형이론(balance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¹⁾

- 1) 홀랜드(Hovland)학파에서 처음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주로 기존의 학습이론에서 제창하고 있던 자극반응이론(stimulus-response theories) 내지 행동주의이론(behavioristic theories)을 원용해서 태도변화의 원리를 설명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학습이론적 태도변화이론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균형이론이 제시되었고, 일치론, 인지부조화설, 인지균형이론이라는 태도변화 이론들이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하이더의 균형이론은 P와 O, 그리고 X 등 세가지 요소들 중에서 서로 두개씩 조합했을 때, 즉 P와 O, P와 X, O와 X와의 관계는 2가지 유형 곧 i) 기호(嗜好) 또는 감정관계와 ii) 단위관계(unit relationship)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들 각 관계는 다시 2개의 하부유형 곧 i) 긍정적 관계와 ii) 부정적 관계로 나누어 진다고 한다. 여기서 평형상태란 예컨대 P가 O를 좋아하고 P가 X도 좋아하고 O도 X를 좋아하여 이들간의 세 관계가 모두 긍정적이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각자(P)의 인지체계 내에 아무런 인지적 긴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평형상태에서는 인지체계가 안정되어 있어서

균형이론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어떤 사물 또는 아이디어(objects, ideas or issues)간의 관계를 지각 내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균형 내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현상적 세계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 내지 사상을 지각하는 사람 즉 i) 지각자(perceiver)를 P라고 하고, 이때 지각의 대상이 되는 ii) 다른 사람(another person)을 O라고 하고, 또한 iii)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objects or ideas)를 X라고 할 때, P가 느끼고 지각하고 있는 P와 O, P와 X, O와 X간의 관계에서 인간들은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피하고 그 대신 평형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더(Heider)는 이러한 주장을 그의 학설의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다(Encyclopedia of Sociology, 1992:117).

상기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청소년(P)이 장애인(O) 대상 봉사활동(X) 관계에서의 긍정적 태도를 보이든, 부정적 태도를 보이든 간에 평형을 이루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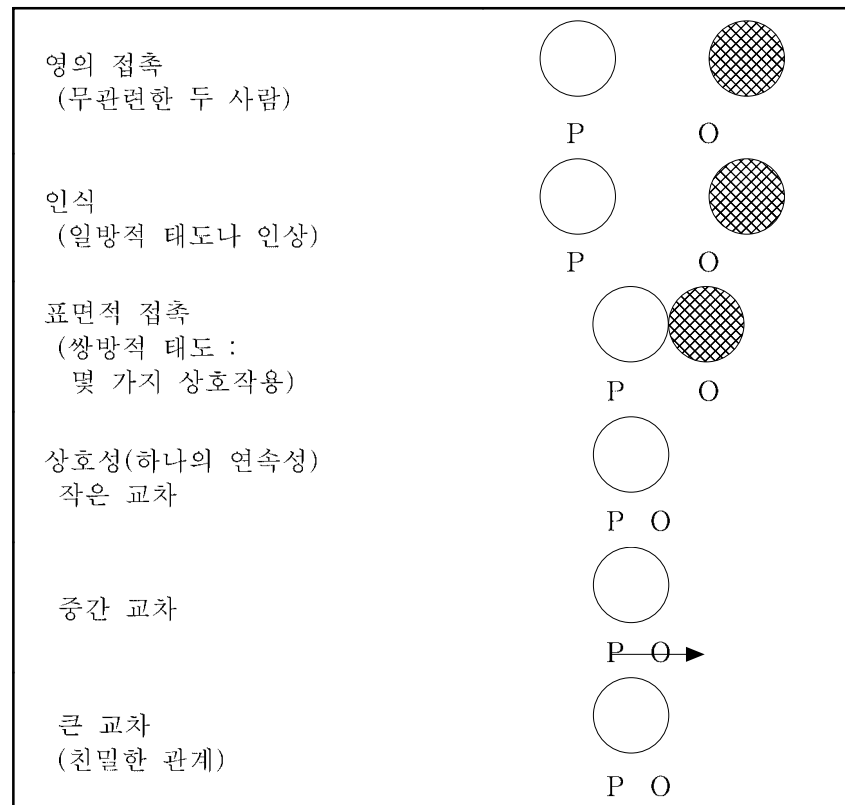
1)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은 두 사람 이상이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서로 영향을 줄 때 일어난다. 시초에,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 양식은 매우 다양하다. 상호작용에서의 영향은 감정, 신념 및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연적 상호작용에서 밀접한 관계들 쪽으로의 진행에 관해서 생각하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레빙거와 스넵크(Levinger & Snoek)에 의해서 개발된 [그림 II-1]

외부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 영향에 저항적인 상태가 되어 태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P가 O를 좋아하나 P가 X를 좋아하지 않고, O는 X를 좋아 한다면, 이 때에는 두 개의 긍정적 관계와 하나의 부정적 관계가 부조화를 이루게 되므로 지각자 내부에 심리적 긴장감이 유발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불평형상태로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인간들은 심리적 긴장감을 제거하고 안정된 인지체계를 되찾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쉽게 받아서 태도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Encyclopedia of Sociology, 1992:117).

과 같이 2차 상호의존에 관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Levinger, G., & Snoek, J. G, 1972:5).

[그림 II-1]에서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러한 경우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이며, 영(零)의 접촉의 지점에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로 한 사람이 상대방에 관해서 어떤 것을 주목하거나 알지만 아무런 직접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단계로 인식의 단계라고 한다. 인식은 일방적이거나(P에서 O쪽으로 일방향 화살표에 의해 보이는 바와 같이), 두 명의 낯선 이들이 방 건너편에서 서로를 쳐다볼 때처럼 쌍방적일 수 있다. 인식단계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타인에 의해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데에 주도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 다음 수준의 표면적 접촉은 두 사람이 아마 이야기하거나 편지를 교환함으로써 처음 상호작용할 때에 시작된다. 표면적 접촉은 상호의존의 시작이며, 관계의 시작이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짧고, 대화의 주제들은 피상적이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은 한정되어 있고, 접촉은 흔히 특수한 사회적 역할들에 의해서 규정된다. 상호작용이 장기간 계속되고, 상호의존의 정도가 증가됨에 따라 그 쌍은 상호성의 단계로 이동한다.



[그림 II-1] 2자 상호의존에 관한 한 모형

레빙거와 스네크는 상호성을 적은 상호의존 [그림 II-1] 원들의 적은 중첩에서 보이는)에서 광범위한 상호의존(많은 중첩에서 보이는)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으로서 개념화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 1학년 동안에 기숙사의 한 방 친구들의 상호작용은 다소 한정되고 정서적으로 먼 상호성에서 그들의 생활들이 유일하게 상호 얽혀지게 되는 어떤 밀접한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밀접한 관계(close relationships)라고 하여 많은 상호의존을 내포하는 관계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다. 이 관계들은 부모, 가장 친한 친구, 어떤 교사, 배우자, 어떤 동료들과의 관계들일 수 있다. 모든 밀접한 관계들은 몇 가지 기본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것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빈번한 상호작

용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로, 밀접한 관계들은 많은 상이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활동들과 흥미들을 함께 갖고 있다. 이것에 비해 피상적 관계들은 단일 활동이나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로, 밀접한 관계들에서 사람들 사이의 영향은 강하다. 더욱이 두 사람이 매우 상호의존할 때, 그들은 서로 강한 정서들을 일으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레빙거와 스눅크의 이론은 시초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상호작용, 예컨대 영(零)의 접촉에서부터 시작하여 표면적 접촉과정을 거쳐 비교적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의존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 나아가 밀접한 관계(close relationships)로 까지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비장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장애인과의 일정기간 동안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바뀌어 질 수 있고, 나아가 상호의존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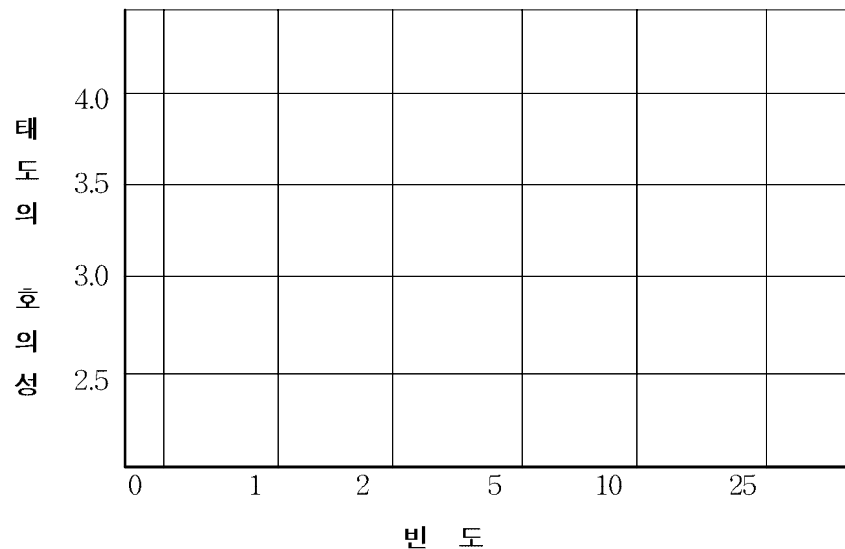
2) 대인호감

대인호감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은 근접성, 친숙성, 타인의 개인적 특징들, 유사성 등이다. 이중에서도 친숙성(familiarity)은 대인호감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데, 자주 접촉하게 됨으로써 타인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접촉 효과는 자롱크(Zajonc)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는데³⁾, 한 연구에서 자롱크는 대학생들에게 안면사진(顔面寫眞)들을 보여주었다. 어떤 사진(寫眞)

2) Kelly, H. H., Berscheid, E., Christensen, A., Harvey, J. H., Huston, T. L., Levinger, G., McClintock, E., Peplau, L. A., & Peterson, D. R.(1983). *Close Relationship*. New York: W. H. Freeman., Shelley E. Taylor, Letitia Peplau, David O. Sears(1994). *Social Psychology*. p. 307에서 재인용.

3) Zajonc, R. B.(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Monograph Suppl., Pt. 2), 1-29., Shelley E. Taylor, Letitia Anne Peplau, David O, Sears, *op. cit.*, p. 287-289에서 재인용.

들은 25회나 제시되었고, 어떤 사진들은 단 한번이나 두 번 제시되었다. 그 다음에 피험자들은 그 사진 속의 인물에 대해 자신이 얼마만큼 좋아했고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를 표시했다. 그 결과들이 자중크는 [그림 II-2]에서 처럼 피험자들이 안면을 더 자주 보았을수록 그들은 그것을 좋아했고 앞으로 좋아할 것 같다고 더 많이 대답했다(Zajonc, 1968: 1-29). 이와 동일한 결과가 실제의 사람들에게 대한 반복 접촉에 대해서도 발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크는 이러한 단순접촉 효과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한다.⁴⁾



[그림 II-2] 노출빈도와 태도 호의성과의 관계

즉 접촉이 초기에 유쾌하거나 적어도 중성적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증가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강하게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비 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초기의 태도가 부정(負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반복적인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4) Bornstein, R. F.(1989). Exposure and affect: Overview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1968-1987. Psychological Bulletin, 106, 265-289., Shelly E. Taylor, Letitia Anne Peplau, David O. Sears(1994), op.cit. p. 288에서 채인용.

는 과연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초기에 장애인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냐 태도를 가졌다면 아무리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인지, 동시에 초기 또는 일정 시점에서 긍정적 태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접촉의 지루함과 포만으로 인해 호감이 줄어드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3.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실증연구

1) 장애인과의 접촉강화

웨스터벨트와 미키니(Westervelt & Mickiny, 1980)는 신체장애아동이 체육활동과 학급활동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제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우호적이지 못한 태도를 개선하려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유사성이란 두 사람이 물리적 근접성과 친숙성에 의해서 함께 접촉하게 되면, 그들이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될 확률이 정서, 친화욕구, 신체적 특성, 성격특징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호감의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의 단계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데 의사소통의 두 가지 측면의 하나가 바로 유사성이다(홍대식 편저, 1995:373).

이들의 연구는 사전검사 이틀 후 13분 정도의 필름을 보고 나서 실험 집단에게 사후검사를 한 결과 필름을 보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⁵⁾ 그러나 9일 후의 재측정에서는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이흐너(Eichnger, 1992)와 그의 동료들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가 장애인에 대한 영화를 본 횟수와 정적(正的)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레인맨, 나의 왼발’과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 토의한 결과 이전에 비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장

5) 이러한 프로그램은 앞의 Zajonc가 사진노출을 통한 친숙성 효과를 장애 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의 통합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입증한 결과라고 하겠다.

애인과 비장애인과와의 접촉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동일한 지위(status)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또래로서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직업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을 경우에 이러한 또래관계를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Donaldson, J., 1980:504-514).

2) 장애체험의 부여

한편 서동명은 윌슨과 알콘(Wilson & Alcon, 1969), 클로어와 제퍼리(Clore & Jeffery, 1972)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장애인의 태도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찰자로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예컨대 휠체어를 타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장애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나 눈가리개를 하고 흰색지팡이를 짚고 길을 걸어 보는 것 등을 체험해 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서동명, 1999:12).

실제로 위와 같은 장애체험 프로그램은 오늘날 우리 나라 청소년의 봉사활동에서도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참여이전에 학교나 봉사활동 관련 기관·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핸들러스와 오스틴(Handlers & Austin, 1980)은 20명의 자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8주간 한 번씩 1시간의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82%가 장애인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서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태도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직접적인 접촉이며, 장애체험, 영화관람, 정보 습득, 그리고 토론의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존슨(Johnson, 1979)과 그의 동료들은 체육활동을 통한 통합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협동적, 개별적, 그리고 자유방임적인 목적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장애 고등학생들과 비장애 고등학생들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으로, 6주간 동안의 볼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사되었다. 여기서는 일대일 상호작용

과 집단성원 전체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는데, 협동적인 프로그램이 두 가지 조사 모두에서 개별적이거나 자유방임적인 프로그램에 비해서 유의미한 정도로 더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긍정적 상호작용을 일으켰다고 보고되었다.

또 다른 연구로서 존스(Jones, 1981)와 그의 동료들은 7-9세의 아동 74명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집단에 2시간 30분씩 2회의 교육을 번갈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동들이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를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게 하는 활동으로 청각 장애 중학생과의 질문과 응답, 수화교육, 심한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과의 대화, 휠체어를 통한 장애체험, 정신지체 청소년과의 팔씨름, 시각장애 대학생과의 대화, 점자의 경험, 눈가리개를 통한 놀이와 활동, 그리고 스포츠에 시각장애인을 참여시키는 영화 관람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활동이 있는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는 토론시간을 갖게 하였다. 이 결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서동명, 1999:14-15).

3) 장애인 대상 도움행동을 통한 비 장애인의 태도변화

스타우브(Staub, 1996)등은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4명의 중도 또는 중등도 장애학생과 31명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일반학생들을 적어도 한 학기 동안 장애학생을 위한 조력자로 활동하도록 배치한 후 다양한 관찰결과를 보고하였다. 모든 장애학생들에게서 관찰한 긍정적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장애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동안 독립성이 증가하였으며, 사회화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사회성이 괄목할 만큼 신장되었다. 또 그들은 학업기능도 함께 발전하였으며,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편 비장애 일반학생 조력자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는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비장애 학생들이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교사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남을 돕는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았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또 많은 일반학생 조력자들은 자기

존중감(self-esteem)이 증가하였고, 대다수의 일반학생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들을 이해하고,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또 아끼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들을 도우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Staub, D., Spaulding, M. & Peck, C. A., 1996: P. 194-205).

이상과 같은 태도변화에 관한 이론들과 실증적 연구결과를 볼 때,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도움행동(helping behavior)등과 같은 직접적 접촉활동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정보전달, 장애체험, 슬라이드와 비디오 상영, 초청강연 그리고 집단토의 등과 같은 간접적 경험이나 접촉을 통해서도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접촉활동 또는 간접적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됨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99년 3월부터 9월까지 전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푸르덴셜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던 「제1회 전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중·고생 개인 참가자 중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청소년들을 선정하였으며, 그러나 대회에 참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총 101명의 청소년 중 장애인에 대한 초기 태도와 활동종료 후의 태도가 명확히 기술되어 내용분석이 가능한 사례만을 선정, 최종적으로 총 92명이 작성한 내용 기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나서 청소년 스스로가 기록한 내용 중에서 태도를 기술하는 기록지만을 선별, 이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1) 내용기록의 분석 범주(categories)

내용분석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내용분석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와 “어떻게 말하는가?”를 다루는 카테고리(예컨대 서술의 형식)가 있다. 여기서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의 범주에서 다루는 몇 가지 주요한 형태인 주제(subject matter)와 방향(direction), 그리고 기준(standard)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장애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태도와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종료하는 시점(활동기록을 작성하는 시점)에서의 태도를 범주화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자 92명이 작성한 내용기록을 전체적으로 나열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태도들을 초기 태도로서 12개 항목, 경험 후의 태도로서 12개 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여기서 범주화한 각각의 태도들은 연구자가 주관적·조작적으로 긍정적, 중성적, 부정적 태도로 다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III-1>참조).

<표 III-1> 청소년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범주

봉사활동 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 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① 장애인의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② 장애인이 두렵거나 무서웠다. ③ 장애인을 보고 당황하여 기피하고 싶었다. ④ 장애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싫었거나 피했다. ⑤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과 이질감을 느꼈다. ⑥ 장애인에 대한 나름대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⑦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 답답하고 어려웠다.	부 정 적 태 도	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어졌다. ② 장애인에게 친숙(친밀)감을 갖게 되었다. ③ 외로운 장애인들에게 진실된 친구가 되거나 친동생같이 대하고 싶다. ④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도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⑤ 장애 아동을 사랑으로 대해줄 용기가 생겼다. ⑥ 장애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⑦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⑧ 장애인들에게 익숙해져 편하게 대할 수 있다. ⑨ 장애인은 나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이다.	긍 정 적 태 도
⑧ 장애인들이 낯설었다. ⑨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거부감은 없었다. ⑩ 별다른 선입견이 없었다.	중 성	⑩ 장애인도 정상인보다 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⑪ 장애인의 재능과 능력, 의지를 보고 나의 태도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중 성 적
⑪ 장애인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긍 정		

2) 내용분석을 위한 실제 기록사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기록지에 기록한 내용 중에서 초기태도와 봉사활동 경험 후 나타나는 태도에 관한 기록내용이 실린 실제 기록사례 1케이스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명 : 서울 ○○ 여자중학교 1학년 1반, 성명 : 김 ○○ >

- 활동장소 : 사회복지법인 우성원
- 활동기간 : 1998. 9. 1 - 1999. 8. 30(총 300시간)
- 활동기록

우리 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전제로 어머니께서 여러 곳을 직접 다녀 오신 후 나의 의견을 물어 장애인 시설인 우성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중 략)-----

어머니와 나는 1급 장애를 가진 매화방에서 차례대로 샤워를 시켜주고 방청소, 정아언니(20세)에게 책이나 신문 읽어주기, 선희 아줌마와 노래 부르기, 퍼즐놀이, 어머니와 내가 준비해간 간식 나눠먹기 등을 하였다.

1급 장애를 가진 6명이 거처하는 방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방에서는 악취가 많이 났고, 생김새(다운증후군)도 이상하여 당황하게 되었고, 무서워서 꿈쩍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상 봉사활동 이전의 초기 태도) 첫날 어머니께서 먼저 그 분들을 목욕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지켜보았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나도 차례대로 샤워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다.

----- (중 략) -----

여러 날 이렇게 하다보니 이 분들과 정도 많이 들게 되었고, 정상이면서도 항상 불평 속에서 게을리 생활하였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조금이나마 허물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장애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이 장애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정상인과 같이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고 말해 주고 싶다**(이상 봉사활동 경험 이후의 태도).

이상과 같은 내용기록을 바탕으로 초기 태도와 후기 태도를 각기 표명한 추출 가능한 92명의 태도 기록내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단순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주요 변인과의 태도변화에 관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 표준편차, t검증 등을 사용하였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성별, 학교 교급, 봉사활동을 실시한 장애인 시설의 분야, 그리고 참여시간과 참여형태별 구성을 요약하면 <표 IV-1>과 같다. 우선 성별로 볼 때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은 여자가 59%로 남자의 33%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79.3%이며, 중학생이 20.7%로 나타나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 시설 분야별로는 지체장애 시설에 63.0%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그 다음이 언어장애 시설로 28.3%, 시각장애 시설이 4.3%, 청각장애 시설과 정신지체 시설이 각각 2.2%의 순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이 작성한 내용기록에 바탕으로 하여 5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주된 동기로는 부모나 학교 교사, 친구 등이 권유하여

<표 IV-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절대빈도	상대빈도(%)	누적빈도(%)
성 별	남 자	33	35.9	35.9
	여 자	59	64.1	100.0
	합 계	92	100.0	
학 교 교 급	중학교	19	20.7	20.7
	고등학교	73	79.3	100.0
	합 계	92	100.0	
참 여 시 설	지체장애시설	58	63.0	63.0
	시각장애시설	4	4.3	67.4
	청각장애시설	2	2.2	69.6
	언어장애시설	26	28.3	97.8
	정신지체시설	2	2.2	100.0
	합 계	92	100.0	
참 여 동 기	봉사활동 점수·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6	6.5	6.5
	주위의 권유로	25	27.2	33.7
참 여 동 기	장애인을 돕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24	26.1	59.8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22	23.9	83.7
	기 타	15	16.3	100.0
	합 계	92	100.0	

일반적 특성		절대빈도	상대빈도(%)	누적빈도(%)
참 여 시 간	10시간 미만	16	17.4	17.4
	10 - 20시간 미만	25	27.2	44.6
	20 - 40시간 미만	16	17.4	62.0
	40 - 100시간 미만	14	15.2	77.2
	100 - 150시간 미만	6	6.5	83.7
	150 - 200시간 미만	6	6.5	90.2
	200시간 이상	9	9.8	100.0
	합 계	92	100.0	
참 여 형 태	직접봉사활동	55	59.8	59.8
	간접봉사활동	8	8.7	68.5
	혼합형 봉사활동	29	31.5	100.0
	합 계	92	100.0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주위의 권유’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을 돕거나 이해하기 위해서’가 26.1%,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가 23.9%로 나타났다.

반면에 ‘봉사활동 점수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6.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시간은 대체로 10시간 이상에서 20시간 미만이 가장 많아 27.2%를 차지하였고, 10시간 미만 참여한 청소년들과 20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 참여한 청소년이 각각 17.4%로 나타났으며, 4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참여한 청소년들도 1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의 활동내용을 크게 직접봉사활동, 간접봉사활동, 직접봉사와 간접봉사활동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형태, 예컨대 목욕시키기, 식사보조, 학습지도, 길 안내 등의 활동인 직접봉사활동이 59.8%, 교구제작활동, 주방보조, 청소나 세탁업무, 사무보조활동 등 간접봉사활동이 8.7%로 나타났으며, 끝으로 직접봉사활동과 간접봉사활동은 각각의 활동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혼합형이 31.5%로 나타나 청소년들

이 직접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볼 때 장애인 시설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은 첫째 장애인 시설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은 성별로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청소년들이 참여한 장애시설의 종류로는 지체장애인 시설이나 언어장애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주위의 권유나 장애인을 돕고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고, 넷째 이들의 봉사활동 시간은 10시간 이상 40시간이 가장 많으며, 참여형태로는 직접적인 봉사활동 형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봉사활동 전·후의 태도변화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부정적이었거나 중성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인특성변수(성별과 교급)에 따른 초기 태도유목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분석결과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기 이전의 장애인에 대한 초기 태도는 장애인이 ‘두렵고 무서웠다’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장애인에 대하여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16.3%, 장애인을 보고 ‘당황하여 기피하고 싶었다’가 15.2%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청소년의 77.1%가 장애인들에 대하여 평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장애인이 ‘낯설었다’가 9.8%, ‘거부감은 별로 없었다’가 2.2%, ‘별다른 선입견이 없었다’ 4.3% 등 중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16.3%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기 이전의 초기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중성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 봉사활동 경험 이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

특 성	태 도	부 정 적							중성적			긍정	기타	합 계
		① 부정적 사고	② 두렵고 무서움	③ 당황 · 기괴	④ 냄새가 나서 싫음	⑤ 거리감 · 이질감	⑥ 편견 · 선입견	⑦ 답답 하고 어려움	⑧ 낯설음	⑨ 거부감 없었음	⑩ 선입견 없었음	⑪ 편하게 해줌	⑫ 기타	
성 별	남 자	1 (1.1)	5 (5.4)	6 (6.5)	4 (4.3)	2 (2.2)	4 (4.3)	4 (4.3)	3 (3.3)	1 (1.1)	1 (1.1)	-	2 (2.2)	33 (35.9)
	여 자	-	17 (18.5)	8 (8.7)	1 (1.1)	4 (4.3)	11 (12.0)	4 (4.3)	6 (6.5)	1 (1.1)	3 (3.3)	1 (1.1)	3 (3.3)	59 (64.1)
	계	1 (1.1)	22 (23.9)	14 (15.2)	5 (5.4)	6 (6.5)	15 (16.3)	8 (8.7)	9 (9.8)	2 (2.2)	4 (4.3)	1 (1.1)	5 (5.4)	92 (100)
학 교 급	중 학 교	-	7 (7.6)	4 (4.3)	1 (1.1)	-	1 (1.1)	1 (1.1)	3 (3.3)	-	1 (1.1)	-	1 (1.1)	19 (20.7)
	고 등 학 교	1 (1.1)	15 (16.3)	10 (10.9)	4 (4.3)	6 (6.5)	14 (15.2)	7 (7.6)	6 (6.5)	2 (2.2)	3 (3.3)	1 (1.1)	4 (4.3)	73 (79.3)
	계	1 (1.1)	22 (23.9)	14 (15.2)	5 (5.4)	6 (6.5)	15 (16.3)	8 (8.7)	9 (9.8)	2 (2.2)	4 (4.3)	1 (1.1)	5 (5.4)	92 (100)

다음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가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경험 이후의 태도변화로 <표 IV-3>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가장 강한 긍정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친구가 되거나 친동생같이 대하고 싶다’가 12.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어졌다’와 장애인에게 ‘친밀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각각 19.6%로서 전체의 39.2%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는 성별로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봉사활동 경험 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봉사활동 이전의 태도에 대해(paired t-test)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IV-4>참조), 동시에 전체적인 태도범주를 살펴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표 IV-3> 봉사활동 경험 이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태 도	특 성	긍 정 적									중 성 적		기타	합 계
		① 편견· 선입견 불식	② 친밀감 생김	③ 친구가 되고 싶음	④ 함께 있고 싶음	⑤ 사랑 할수 있음	⑥ 동정심 생김	⑦ 두려움 없어짐	⑧ 대하기 편함	⑨ 도움이 필요한 대상	⑩ 올바른 인식 계기	⑪ 자신의 반성 계기	⑫ 기타	
성 별	남 자	8 (8.7)	6 (6.5)	2 (2.2)	2 (2.2)	1 (1.1)	-	4 (4.3)	4 (4.3)	-	2 (2.2)	2 (2.2)	2 (2.2)	33 (35.9)
	여 자	10 (10.9)	12 (13.0)	9 (9.8)	4 (4.3)	4 (4.3)	2 (2.2)	3 (3.3)	2 (2.2)	1 (1.1)	4 (4.3)	6 (6.5)	2 (2.2)	59 (64.1)
	계	18 (19.6)	18 (19.6)	11 (12.0)	6 (6.5)	5 (5.4)	2 (2.2)	7 (7.6)	6 (6.5)	1 (1.1)	6 (6.5)	8 (8.7)	4 (4.3)	92 (100)
학 교 급	중 학 교	2 (2.2)	2 (2.2)	3 (3.3)	3 (3.3)	2 (2.2)	1 (1.1)	1 (1.1)	3 (3.3)	-	2 (2.2)	-	-	19 (20.7)
	고 등 학 교	16 (17.4)	16 (17.4)	8 (8.7)	3 (3.3)	3 (3.3)	1 (1.1)	6 (6.5)	3 (3.3)	1 (1.1)	4 (4.3)	8 (8.7)	4 (4.3)	73 (79.3)
	계	18 (19.6)	18 (19.6)	11 (12.0)	6 (6.5)	5 (5.4)	2 (2.2)	7 (7.6)	6 (6.5)	1 (1.1)	6 (6.5)	8 (8.7)	4 (4.3)	92 (100)

<표 IV-4> 봉사활동 경험 이후의 태도변화

표준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t	df
	하한	상한		
9.70E-02	-1.74	-1.35	-15.907	91

* P=0.000.

것으로 나타났다(태도범주 ① ~ ⑨까지의 항목에 해당). 이러한 긍정적 태도범주에 해당되는 빈도는 전체의 80.5%에 달하며, 이는 초기의 부정적 태도 77.2%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나서도 중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는 경우가 15.2%로 나타났는데, 이는 봉사활동 초기 태도 중 중성적 태도를 보였던 16.3%에 비하여 크게 변화되지 않아 장애인들에 대한 중성적인 태도는 봉사활동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V-5>참조).

<표 IV-5> 봉사활동 전·후의 태도변화

단위 : 명, (%)

후기태도 초기태도 \	① 긍정적태도	② 중성적태도	③ 기 타	계
① 부정적 태도	59(64.1)	10(10.8)	2(2.2)	71(77.2)
② 중성적 태도	12(13.0)	1(1.1)	2(2.2)	15(16.3)
③ 긍정적 태도	1(1.1)	-	-	1(1.1)
④ 기 타	2(2.2)	3(3.2)	-	5(5.4)
계	74(80.4)	14(15.2)	4(4.4)	92(100)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로서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들 보다 장애인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고, 중학교 여학생보다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이 ‘두렵고 무서웠다’고 기록한 내용이 가장 많아 흔히 말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태도 보다는 훨씬 더 강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봉사활동 초기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는 부정적인 태도가 77.1%로 나타나고, 중성적인 태도가 16.3%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태도는 1.1%에 불과하여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기 이전의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기 이전의 태도가 비록 강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태도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초기의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여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장애

인과 접촉하기 이전에 무섭고 두려운 대상으로 여겼던 장애인에게 친밀감을 갖게 되는 변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중크(Zajonc)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던 단순 접촉효과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대한 반복 접촉을 통해서 친밀감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태도변화의 요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에는 단순히 활동경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변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변인, 예컨대 참여동기, 참여형태(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형태의 봉사활동, 간접 접촉형태의 봉사활동, 양자의 혼합형태의 봉사활동 등), 그리고 참여시간 등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살펴 보았다.

첫째, 참여동기가 태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참여당시의 동기, 예컨대 특별히 ‘장애인을 돕거나 이해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이타적 동기에서부터 ‘봉사활동 점수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는 이기적 동기에 따라 활동 경험 후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표 IV-6>에서와 같이 참여동기는 내용기록지를 근거로 하여 크게 5가지 동기로 유목화시켰다. 참여동기의 유목을 살펴 보면, 우선 동기 I은 ‘점수나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동기 II는 선생님이나 부모 또는 친구 등의 ‘주위의 권유로’, 동기 III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돕고 싶어서’, 동기 IV는 ‘봉사활동을 그냥 하고 싶어서’, 동기 V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들 동기들을 다시 ‘이타적 동기 또는 사회책임의식의 동기’와 ‘이기적 동기 또는 경험추구적 동기’로 분류해보면 동기 I은 가장 두드러진 이기적 동기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동기 III은 대표적인 이타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두드러진 동기는 동기 I의 ‘선생님이나 부모 또는 친구의 권유’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기 Ⅲ의 ‘장애인을 이해하고, 돕고 싶어서’가 26.1%로 동기 I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이 동기Ⅳ의 단순히 ‘봉사활동을 그냥하고 싶어서’로 23.9%의 비율을 보였다.

이타적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동기 Ⅲ의 경우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변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어졌다’고 하는 태도변화가 7.6%로 나타나지만 동기 Ⅲ내에서만 보았을 때는 2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기 Ⅱ의 경우에는 봉사활동 경험 이후 ‘장애인에게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가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동기 Ⅱ내에서만 보았을 때도 3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기적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동기 I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빈도에서는 낮게 나타나지만 동기 I 내에서 볼 때는 장애인에게 ‘친밀감이 생기게 되었다’가 50%로 나타나 비록 이기적 동기로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이타적 태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동기가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r 값이 -.51로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기가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봉사활동 참여동기별 태도

단위 : 명, (%)

태도 동기	긍정적									중성적		기타	합 계
	① 편견· 선입견 불식	② 친밀감 생김	③ 친구가 되고 싶음	④ 함께 있고 싶음	⑤ 사랑 할수 있음	⑥ 동정심 생김	⑦ 두려움 없어짐	⑧ 대하기 편함	⑨ 도움이 필요한 대상	⑩ 올바른 인식 계기	⑪ 자신의 반성 계기	⑫ 기타	
동기 I	3 (3.3)	-	1 (1.1)	1 (1.1)	-	-	-	-	-	-	1 (1.1)	-	6 (6.5)
동기 II	3 (3.3)	8 (8.7)	-	1 (1.1)	1 (1.1)	-	2 (2.2)	5 (5.4)	-	1 (1.1)	2 (2.2)	2 (2.2)	25 (27.2)
동기 III	7 (7.6)	3 (3.3)	2 (2.2)	2 (2.2)	1 (1.1)	1 (1.1)	3 (3.3)	1 (1.1)	1 (1.1)	2 (2.2)	1 (1.1)	-	24 (26.1)
동기 IV	2 (2.2)	3 (3.3)	6 (6.5)	2 (2.2)	1 (1.1)	-	1 (1.1)	-	-	3 (3.3)	2 (2.2)	2 (2.2)	22 (23.9)
동기 V	3 (3.3)	4 (4.3)	2 (2.2)	-	2 (2.2)	1 (1.1)	1 (1.1)	-	-	-	2 (2.2)	-	15 (16.3)
계	18 (19.6)	18 (19.6)	11 (12.0)	6 (6.5)	5 (5.4)	2 (2.2)	7 (7.6)	6 (6.5)	1 (1.1)	6 (6.5)	8 (8.7)	4 (4.3)	92 (100)

다음으로 참여시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가 참여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과의 접촉빈도가 많으면 많을 수록, 다시 말해서 봉사활동 시간 수가 길면 길수록 긍정적 태도로 변화의 정도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참여시간과 봉사활동 이후의 태도변인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한 빈도를 살펴 보았는데, <표 IV-7>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참여시간은 시간 II인 '10시간~20시간 미만'이 2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시간 I의 '10시간 미만'과 시간 III의 '20시간~40시간 미만'이 각각 17.4%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인 태도변화 분포를 살펴 보면, 전체의 80.5%가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였으며, 참여시간별 긍정적 태도변화율을 보면 시간 I에서는 81%(16명 중 13명), 시간 II에서는 88%(25명 중 22명), 시간 III에서는 75%(16명 중 12명), 시간 IV에서는 71.4%(14명 중 10명), 시간 V와 시간 VI에서는 동일하게 83.3%(6명 중 5), 시간 VII에서는 77.8%(9명

중 7명)이 각각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 II에서 긍정적 태도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 수록 태도변화율이 상승하지는 않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비교적 높은 긍정적 태도변화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참여시간이 길면 길수록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가설은 r 값이 -0.048 로 나타나고 있어 상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태도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간 II는 본스타인(Bornstein)이 앞에서 제시한 이론, 즉 호감을 최대화시키는 최적수준의 접촉이 있다고 하는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량의 접촉으로 지루함과 포만을 일으키게 된

<표 IV-7> 봉사활동 참여시간별 태도

단위 : 명, (%)

태 도 시 간	공 정 적									중 성 적		기타	합 계
	① 편견· 선입견 불식	② 친밀감 생김	③ 친구가 되고 싶음	④ 함께 있고 싶음	⑤ 사랑 할수 있음	⑥ 동정심 생김	⑦ 두려움 없어짐	⑧ 대하기 편함	⑨ 도움이 필요한 대상	⑩ 올바른 인식 계기	⑪ 자신의 반성 계기	⑫ 기타	
시간 I	1 (1.1)	2 (2.2)	3 (3.3)	4 (4.3)	-	2 (2.2)	1 (1.1)	-	-	-	2 (2.2)	1 (1.1)	16 (17.4)
시간 II	8 (8.7)	4 (4.3)	2 (2.2)	1 (1.1)	1 (1.1)	-	4 (4.3)	2 (2.2)	-	1 (1.1)	2 (2.2)	-	25 (27.2)
시간 III	1 (1.1)	3 (3.3)	3 (3.3)	-	-	-	2 (2.2)	3 (3.3)	-	2 (2.2)	1 (1.1)	1 (1.1)	16 (17.4)
시간 IV	4 (4.3)	4 (4.3)	-	-	1 (1.1)	-	-	1 (1.1)	-	1 (1.1)	2 (2.2)	1 (1.1)	14 (15.2)
시간 V	-	3 (3.3)	-	-	1 (1.1)	-	-	-	1 (1.1)	-	-	1 (1.1)	6 (6.5)
시간 VI	2 (2.2)	-	1 (1.1)	1 (1.1)	1 (1.1)	-	-	-	-	-	1 (1.1)	-	6 (6.5)
시간 VII	2 (2.2)	2 (2.2)	2 (2.2)	-	1 (1.1)	-	-	-	-	2 (2.2)	-	-	9 (9.8)
계	18 (19.6)	18 (19.6)	11 (12.0)	6 (6.5)	5 (5.4)	2 (2.2)	7 (7.6)	6 (6.5)	1 (1.1)	6 (6.5)	8 (8.7)	4 (4.3)	92 (100)

* 시간 I : 10시간 미만

시간 II : 10시간~20시간 미만

시간 III : 20시간~40시간 미만

시간 IV : 40시간~100시간 미

만

시간 V : 100시간~150시간 미만

시간 VI : 150시간~200시간 미

만

시간 VII : 200시간 이상

다는 이론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이론적 근

거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호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시간은 10시간~20시간 미만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형태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청소년들의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참여형태는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활동으로 목욕시키기, 식사보조, 학습지도, 놀이지도, 길안내 등의 봉사활동을 직접봉사활동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교구제작, 주방보조, 청소 그리고 세탁 등의 봉사활동을 간접봉사활동으로, 그리고 위의 2가지 형태를 혼합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혼합형 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각각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난 이후 청소년들의 태도변화를 알아 본 결과 <표 IV-8>과 같이 직접봉사활동의 형태가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형이 그 다음으로 31.5%, 그리고 간접봉사활동은 8.7%로 태도변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봉사활동 형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53.3%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 태도변화는 직접봉사활동 형태내에서만 보았을 때 89%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혼합형 형태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변화는 31.5%중에 21.7%를 보이고 있어 69%의 높은 긍정적 태도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태도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레빙거와 스넵크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8> 봉사활동 참여형태별 태도

단위 : 명, (%)

태도 참여 형태	긍정적									중성적		기타	합 계
	① 편견· 선입견 불식	② 친밀감 생김	③ 친구가 되고 싶음	④ 함께 있고 싶음	⑤ 사랑 할수 있음	⑥ 동정심 생김	⑦ 두려움 없어짐	⑧ 대하기 편함	⑨ 도움이 필요한 대상	⑩ 올바른 인식 계기	⑪ 자신의 반성 계기	⑫ 기타	
직접 봉사	11 (12.0)	12 (13.0)	6 (6.5)	6 (6.5)	2 (2.2)	1 (1.1)	7 (7.6)	3 (3.3)	1 (1.1)	1 (1.1)	5 (5.4)	-	55 (59.8)
간접 봉사	2 (2.2)	1 (1.1)	-	-	2 (2.2)	-	-	-	-	3 (3.3)	-	-	8 (8.7)
혼합형 봉사	5 (5.4)	5 (5.4)	5 (5.4)	-	1 (1.1)	1 (1.1)	-	3 (3.3)	-	2 (2.2)	3 (3.3)	4 (4.3)	29 (31.5)
계	18 (19.6)	18 (19.6)	11 (12.0)	6 (6.5)	5 (5.4)	2 (2.2)	7 (7.6)	6 (6.5)	1 (1.1)	6 (6.5)	8 (8.7)	4 (4.3)	92 (100)

<표 IV-9> 봉사활동 참여형태별 태도변화

표준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t	df
	하한	상한		
9.70E-02	5.59E-3	-.53	2.043	61

* P=0.045

이는 앞에서 추론하였던, 즉 비 장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장애인과의 일정기간 동안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바뀌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청소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의 장애인들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촉을 봉사활동이라는 매개를 통해 경험하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불식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활동과 간접적 활동만을 가지고 활동경험 이후의 태도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r값이 .060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여형태와 태도변화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태도변화 관련 변인으로 설정하였던 참여동기와 참여시간, 참여형태 중에서 어떠한 변인이 가장 긍정적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든 바, 세가지 변인 모두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그 중에서도 참여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earson 상관값이 .060), 참여동기나 참여시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해 보면 우선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로 참여동기의 경우 처음부터 ‘장애인을 돕거나 이해하기 위해’ 참여하게 된 경우가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왔고, 이기적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점수 얻기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참여한 경우에서도 50% 정도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시간에 있어서는 참여시간이 길면 길 수록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았으나 참여시간과 긍정적 태도변화는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는 시간이 20시간 정도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긍정적인 태도변화는 이후의 시간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100시간~150시간, 150시간 이상에서도 각각 83.3%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2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변화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특히 10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높은 비율로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여형태에 있어서는 직접봉사활동 형태나 직접봉사활동과 간접봉사활동의 혼합형 봉사활동이 모두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 온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60.9%로 나타났으며, 직접봉사활동의 경우가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형 봉사활동이 31.5%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봉사활동의 경우에 있어서의 긍정적 태도변화율만 보면 89%(55명 중 49명), 혼합형 봉사활동 경우의 긍정적 태도변화율은 68.9%(29명 중 20명), 간접봉사활동의 경우는 62.5%(8명 중 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봉사활동 형태가 긍정적 태도변화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봉사

활동 참여형태는 가능한 장애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봉사활동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태도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레빙거와 스네크의 이론을 입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어떠한 의의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교육적 의의, 사회복지적 의의 등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봉사활동 의의가 교육적 목적이든 사회복지적 목적이든 두 관점 모두, 좁게는 사회성 발달을 목표로 하고, 크게는 인류애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성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이타성을 특성으로 하는 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류애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나아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 잠재력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정상화(normalization)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강조하여 왔고, 다양한 통합활동 프로그램들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노력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통합교육이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교사가 개입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자원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교육과정의 하나로써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통합교육의 효과도 의외로 쉽게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비 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관련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있어 왔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변화를 갖게 하는지

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청소년들 역시 장애인들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 하는 점 등을 가정하고 시작하였다. 그리고 태도변화에 관한 여러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태도변화의 매개수단이 장애인에 대하여 과연 긍정적으로 태도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장애인 시설에서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분명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의 장애인 시설에서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방향도 역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나 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함은 물론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육이나 사전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장애 청소년이 장애 간접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초기 부정적 태도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나 자원봉사 관련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 영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장애인 시설에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에게 간접 접촉의 봉사활동보다는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하여 최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들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적당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가능한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사전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장애인과 관련한 각종 행사시 비장애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장애인들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거나 캠프, 레크리에이션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학교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비장애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을 위해 정기적인 장애인 이해 강좌, 장애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시설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봉사활동 대상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교사나 학부모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을 선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칫 성인 자신들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으로 청소년이 장애인 시설을 택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경험하고자 하는 경우에 오히려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걸림돌로 작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도수(1999). 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방안, 서울:국립특수교육원.
- 김성재(1998).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 장애인 정책입문, 사단법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 김영모(1991). 사회복지학, 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1
- 김인정(1997). 서울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95). 연구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1995
- 김현숙(1998). 자원봉사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만족도와 사회적 학습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식(1999).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여건 개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방안, 서울:국립특수교육원
- 김통원(1999). 사회봉사론, 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 박성애(1983). 신체장애아에 대한 정상아동의 태도변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균(1997).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제18집 제1호, 대한특수교육학회.
- 박영균(1999).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문영사, 1999
- 서동명(1999). 발달장애청소년과 통합활동경험을 통한 일반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남(199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식(1995).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화(1992).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유진(199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조휘일(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배근(1992). 태도변용이론, 서울:도서출판 나남.
- 홍대식 편저(1995). 사회심리학, 서울:양영각.
- Allport. G. W.(1935). Attitudes, in C. Murchison(ed), *AQ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ss: Clark Univ. Press.
- Daniel Bar-Tal.(1976). *Prosocial behavior*, NY: John Wiley & Sons.
- Donaldson, J.(1980). *Changing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Person, A Review and Analysis of Research*. Exceptional Children.
- Eisenberg. N.(1982). *The development of reasoning regarding*

-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Kelly, H. H., Berscheid, E., Christensen, A., Harvey, J. H., Huston, T. L., Levinger, G., MaClintock, E., Peplau, L. A., & Peterson, D. R.(1983).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W. H. Freeman.
- Levinger, G. & Snoek, J. G.(1972). *Attraction in Relationship: A new look at interpersonal attraction*.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Staub, D., Spaulding, M. & Peck, C. A.(1996). Using non-disabled peers to support the in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t the junior high school level.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vol. 21.
- Taylor, S. E., Peplau, L. A., Sears, D. O.(1994). *Social Psychology*, 8th Edition, Prentice Hall.
- Thurstone, L. L. & Chave, E. J.(1929). The measurement of Attitud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ajonc, R. B.(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Monograph Suppl., Pt. 2).

ABSTRACT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the Attitude Change
Towards the Handicapped

Kim, Jeoung-Bae*

Youth volunteering aims at strengthening the spirit of love for mankind through fostering humanism and community sense. And

* Chief, Korea Youth Volunteer Center

this spirit of love for mankind is rooted on altruism and philanthropism, which are characteristic features of volunteering.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distorted beliefs and prejudice wide spread against the handicapped in our society. Henc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have tried to peruse how the attitudes of youths towards the handicapped are changed through volunteering experience. And further mo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tried to present a desirable direction of youth volunteering at institutes and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Self reports of 92 youths were analyzed, to check and compare their initial attitudes and changed ones towards the handicapped people, before and after the activities at various places for the handicapp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ly,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92 youths had negative or neutral attitudes towards the handicapped before they had volunteering experiences at the institutes and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However, their attitudes were changed into positive ones after their volunteering.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ir attitudes were changed more positive when they began their volunteering with altruistic motives though, some positive changes were detected after the volunteering even they started their volunteering with rather egoistic motives.

Thirdly, it was found that the most suitable length of time in volunteering for the youth was at least 10~20 hours to secure their positive attitude change towards the handicapped. In other words, the more time they devote themselves in volunteering, their attitudes do not change negatively nor more positively.

Fourthly, it was also found that direct contact with the handicapped affected more positively on their attitude change compared to the indirect contact.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researcher here suggests a desirable direction of youth volunteering at institutes and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Firstly, the importance of volunteering at institutes and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should be stressed in schools and volunteer organizations. And diverse and valuable information about people with various handicaps and facilities for them need to be provided to the youths through volunteer education.

Secondly, efforts need to be made to develop and run inclusive programs for the handicapped and the non-handicapped people, when they hold campaigns or events which are related with the handicapped in the community base.

Thirdly,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recognition of parents and teachers of non-handicapped youths on the handicapped people. They should abolish their prejudices on the handicapped people and rather try to understand and admit the handicapped as unique human beings who are endowed with dignity.